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동사건 어휘화 양상 연구

리우하이러 *김성주**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이동사건과 어휘화 유형론
3. 연구 방법
4. 이동사건 어휘화 양상 분석
5. 나오는 말

*제 1 저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xllfdzh@naver.com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sutra01@daum.ne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이동사건을 표현할 때 이동사건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어휘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이동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중 모어 화자에게 보게 한 후, 이들이 각각의 이동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화 양상과 한·중 모어 화자의 어휘화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V₁-어)(V₂-어)(가다/오다)’, ‘V_{경로}’, ‘V_{방식}’, ‘VP₁+ 연결어미+ VP₂’ 등에서 비교적 일치하는 어휘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어휘화 양상은 중국어 모어 화자의 그것과 달랐다. 세 집단의 화자의 경우 주로 [경로]와 [방식]을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한다. [경로]에 대해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88%, 한국어 모어 화자는 86%, 중국어 모어 화자는 84%로 나타났다. 반면 [방식]의 경우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52%, 한국어 모어 화자는 45%, 중국어 모어 화자는 82%로 나타났다. 즉, 중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방식]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으며 [경로]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경향이 많아서 [방식]을 인식하는 비율(84%)과 [경로]를 인식하는 비율(82%)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주제어: 이동사건, 어휘화, 방식, 경로, 제2 언어 습득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목표어인 한국어로 이동사건을 표현할 때 [방식]과 [경로]에 대한 어휘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화 양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어휘화 양상과 중국인 모어 화자의 중국어 어휘화 양상을 살펴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이동사건에 대한 범언어적 어휘화 유형을 L2습득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L2학습자가 이동사건을 모국어(중국어)와 유형론적으로 다른 목표어(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Talmy(1985, 2000a,b) 이후, 언어유형론 분야에서 이동사건의 범언어적 어휘화 유형을 둘러싼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관련 선행연구에는 Choi & Bowerman(1991), 채희락(1999), 임지룡(2000), Slobin(2004), 이숙(2007), 홍연옥(2013), 맹경흠·전옥(2018), 이연화(2018) 등이 있다. 중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관련 선행연구에는 柯理思(2003), 沈家煊(2003), Tai(2003), 劉岩(2013), 鄧宇·李福印(201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제2언어습득 연구로도 확장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에는 Cadierno(2004), Park(2008), 김정숙(2011), Larranage et al.(2012), 劉岩(2014), 최원화·김희숙(2015), 정지윤(2019), Park(2020)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 시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는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어휘화 양상의 윤곽이 보인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중 모어 화자의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과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먼저 2장에서는 기본적인 이동사건의 어휘화 이론과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화 양상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

리고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을 살펴보고 한·중 모어 화자의 어휘화 양상을 비교하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동사건과 어휘화 유형론

2.1. Talmy(2000b)의 어휘화 양상 이론

Talmy(2000b: 25)에서는 기본 운동사건(Motion Event)을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관하여 이동(MOVE)하거나 위치(Be Located)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 운동사건의 의미요소는 크게 전경, 배경, 운동, 경로이다. 여기서 전경(Figure)은 실제 움직이거나 개념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이다. 배경(Ground)은 전경의 경로나 위치를 기술할 수 있는 하나의 참조 틀이고, 또 그 틀 안에 있는 정지된 참조 물체이다. 경로(Path)는 전경이 배경에 관하여 지나가는 통로, 또는 전경이 있는 장소이다. 운동(Motion)은 운동사건 중에서 해당 물체의 존재나 위치 관계를 가리킨다. 운동사건은 외부의 관련사건(co-event)도 종종 관련이 있는데, 그중에서 방식이나 원인이 가장 빈번하다. 방식(Manner)은 움직임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원인(Cause)은 움직임을 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인간은 이동에 대한 기본 의미요소 개념을 공유하지만 이동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Talmy(2000b: 221-224)에 따르면 이동과 관련된 개념요소 중에서 [경로]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경로]는 다른 개념요소 [전경], [운동], [배경] 등의 관계를 나

1 Talmy(2000b: 25)의 논의에서, 운동사건(Motion Event)은 이동과 위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경이 배경에 관하여 위치의 변동을 발생한 위치이동 사건만을 연구 대상으로 취하고 ‘존재’와 같이 정지된 위치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Mo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주로 이동(MOVE)을 사용하고자 한다.

타내기 때문이다. 세계 언어들은 이동사건에서 경로를 나타내는 통사적 성분을 기준으로 동사를 언어²와 위성틀 언어³로 나뉜다.

V-언어는 이동사건의 의미요소인 [경로]가 주요동사(main verb)로 표현되는 언어이다. 스페인어를 포함한 로망스어족의 언어들, 일본어, 한국어, 타밀어, 폴리네시아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스페인어의 예문을 제시하면 아래 (1)과 같다.

(1) La bottle Salió de la cueva flotando. (스페인어)(Tamly 2000b: 224)

[전경] [운동+ 경로] [배경] [방식]

The bottle exited(moved-out) from the cave floating. (영어 직역)

(1)에서 [전경]은 La bottle이고, [배경]은 la cueva이다. 그리고 동사 ‘salió’에는 ‘to exit’의 [경로]가 융합되어 있고, 동명사 ‘flotando’에는 [방식]이 융합되어 있다. 이처럼 V-언어에는 [경로]의 의미 성분은 주동사에 융합되어 있으며 [방식]과 [원인] 요소는 종속절이나 부사절 표현과 같은 별개의 성분으로 표현된다.

S-언어는 [경로]가 동사에 융합되지 않고, 마치 위성(satellite)⁴처

2 verb-framed languages. 이하 논문에서는 ‘V-언어’라고 약칭한다.

3 satellite-framed languages. 이하 논문에서는 ‘S-언어’라고 약칭한다.

4 Talmy(2000b: 222)는 ‘동사 위성어’를 동사와 자매 관계에 있고 동사 어근의 근처에 있는 문법 범주이다. 위성어는 접사나 독립된 단어일 수 있다. 따라서 위성어는 영어의 동사 전치사(particles), 독일어 분리와 분리할 수 없는 동사 접두사, 라틴어 또는 러시아어의 동사 접두사, 중국어의 동사 보어 등의 문법 범주가 포함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영어의 위성어(satellites)는 영어의 전치사(prepositions)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성어는 동사와 같은 구조이고 전치사는 명사 목적어와 같은 구조이다. 이 규칙과 일관되게, 배경 명사가 생략되면, 배경과 함께 나타나는 전치사도 같이 생략되지만 위성어는 남아 있다. 예를 들어, “He was sitting in his room and then suddenly ran out (of it).”에서 만약 ‘it’이 생략된다면, 그것과 함께 구조되는 전치사 ‘of’도 생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사 ‘run’과 함께 구조되는 ‘out’은 제자리에 남아 있다(Talmy 2000b: 107). 이런 관점에 따라 한국어의 조사(‘-에’, ‘-로’...)는 위성어로 볼 수 없다. 중국어에서도 예를 들면서 “筆從桌子上滾下來”에서 ‘下來’는 위성어이고 ‘从’는 전치사(개사)이지 위성어로 분석할 수 없다.

럼 동사 주위의 성분인 불변화사 등 위성어들을 통하여 표현하는 언어이다. 로망스어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도-유럽어 즉,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오지브와어(Ojibwa), 핀란드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영어의 예문을 제시하면 아래 (2)와 같다.

(2) The bottle floated out of the cave. (영어)(Tamly 2000b: 66)
 [전경] [운동+ 방식] [경로] [배경]

(2)에서 the bottle은 [전경]이고, the cave는 [배경]이다. 핵심적 요소인 [경로]를 위성어인 ‘out’로 어휘화되고, 동사 ‘float’에는 [운동+ 방식]을 나타낸다. 즉, S-언어에서 [방식] 및 [원인] 요소는 주동사에 융합되고 [경로]는 부수적인 요소인 위성의 형태로 별도로 표기된다.

2.2.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화 양상

Talmy(1985, 2000a,b)에서는 한국어는 V-언어, 중국어는 S-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아쉽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Talmy(1985, 2000a,b) 이후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유형에 대한 논의들이 뒤따랐다. 한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관련 선행연구에는 Choi & Bowerman(1991), 채희락(1999), 임지룡(2000), Slobin(2004), 이숙(2007), 홍연옥(2013), 맹경흠·전옥(2018), 이연화(2018) 등이 있다. 중국어의 이동사건 어휘화 관련 선행연구에는 柯理思(2003), 沈家煊(2003), Tai(2003), 劉岩(2013), 鄧宇·李福印(201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는 서로 차이를 보여 하나의 통일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는 이들이 각각 특정 종류의 이동사건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의 경우 이동사건의 종류⁵에 따라 다른 어휘화 유

5 행위성(agentivity)에 따라 이동사건은 자발적 이동사건, 비사역적 이동사건, 사역적 이동사건으로 나눈다.

자발적 이동사건(self-agentive motion event)은 전경이 스스로 이동하는 사건을

형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Choi & Bowerman 1991, 리우하이러·김성주 2022).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 (3) 학생이 책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넣었다. (사역적 이동구문, V-언어)
[행위주] [전경] [배경] [원인][운동+ 경로]
- (4) 가. 여자가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발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배경] [방식][경로][운동+ 직시]
나. 여자가 방으로 들어간다. (자발적 이동의 이동구문, [?]V-언어)
[전경][배경] [경로][운동+ 직시]
- (5) 가. 종이 배가 물을 따라 떠 내려간다. (비사역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배경] [방식][경로][운동+ 직시]
나. 공이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 (비사역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배경] [경로][운동+ 직시]

(3)에서 ‘밀다’는 [원인]을 표현하고 ‘넣다’는 [운동+ 경로]를 표현하기 때문에 V-언어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리우하이러·김성주(2022)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한국어는 사역적 이동구문에서 전형적인 V-언어 유형의 특징을 지니는 언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4-5)에서는 (3)과 같은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연쇄적인 형식에서 ‘가다’ 및 ‘오다’의 의미 요소는 [운동+ 직시]로 융합되어 가장 중요한 동사가 되고, [방식]과 [경로]는 별도의 동사에 의해 명시되기 때문에 이런 연쇄적인 형식은 한국어의 어휘화 유형의 논란거리가 되었다. (4-5)와 같은 어휘화 양상을 가지고 한국어를 V-언어로 볼 수 없다는 선행연구들에는 Choi & Bowerman(1991), 임지룡(2000), 진현(2010)이 있다. 또한 [경로]과 [방식]이 별도의 동사에 의해 명시되고 두 개의 성분 중 어느 것이 주동사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말한다. 여기의 전경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생명체이다.

사역적 이동사건(agentive motion event)은 행위자가 전경을 이동시키는 사건을 말한다.

비사역적 이동사건(nonagentive motion event)은 전경이 스스로 이동한 사건처럼 보인데 어떤 외부의 힘으로 발생시킨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Talmy, 2000b:28).

를 새로운 유형, 즉, Slobin(2004)가 언급한 E-언어⁶라고 제안하기도 한다(홍연옥 2013, 이연화 2018).

그러나 (4-5)의 ‘(V₁-어)(V₂-어)(가다/오다)’과 같은 어휘화 양상인 [경로]가 동사로 어휘화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국어는 V-언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시]는 [경로]의 하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채희락(1999)와 리우하이러·김성주(2022)의 주장과 같이 한국어를 ‘V-언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 이동사건의 종류의 따라 어휘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柯理思 2003, 리우하이러·김성주 2022), 다음 (6), (7), (8)의 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 (6) 가. 女孩 走 進 房間。(자발적 이동구문, S-언어)
 [전경] [운동+ 방식][경로] [배경]
 여자 걸- 들- 방
 여자가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 나. 女孩 進 房間。(자발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운동+ 경로] [배경]
 여자 들- 방
 여자가 방으로 들어간다.
- (7) 가. 筆 從桌子上 滾 下來。(비사역적 이동구문, S-언어)
 [전경] [배경] [운동+ 방식] [경로]
 펜 책상-에서 구르- 내려오-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 나. 一列火車 過 橋。(비사역적 이동구문, V-언어)
 [전경] [운동+ 경로] [배경]
 열차 건너- 다리
 열차가 다리를 건넌다.
- (8) 人 把木塞(從紅酒瓶上) 拔 出來了。(사역적 이동구문, S-언어)
 [행위주] [전경] ([배경]) [운동+ 원인][경로]

6 Slobin(2004)에서는 V-언어와 S-언어 이외에도 제3의 유형으로 E-언어(equipollently-framed language)를 추가하였다. E-언어는 [방식]과 [경로]가 동등한 문법인 지위를 가진다.

사람 코르크 마개(와인병-에서) 뽑- 나오-
 사람이 코르크 마개를(와인병에서) 뽑았다.

(6가, 7가)와 같이 [방식]과 [경로]의 어휘화 양상은 ‘走進, 滾下來’와 같이 ‘동사-방향보어’ 구조로 나타난다. ‘走, 滾’라는 동사는 [운동+방식]으로 융합하고 [경로]는 ‘進, 下來’ 등의 방향보어⁷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중국어는 자발적 이동사건에서 S-언어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6나, 7나)의 ‘進, 過’ 등의 방향보어는 [운동+경로]로 융합하고 독립적으로 주동사를 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 이동사건과 비사역적 이동사건에서 V-언어 유형의 특징도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어도 V-언어 유형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8)의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중국어가 ‘동사-방향보어’ 구조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S-언어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S-언어이면서 동시에 V-언어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하겠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4)와 (6)은 같은 이동장면인 ‘한 여자가 방에 들어간다’에 대해 표현한 것이나 두 언어에서 같은 이동사건을 어휘화 할 때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4나)의 방식 동사 ‘걷다’의 사용 유무가 의미적, 통사적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나)의 ‘들어가다’가 (4가)의 ‘걸어 들어가다’보다 많은 것을 보였다. (6)의 중국어 예문은 이와 다르다. (6가)의 ‘走進’과 같은 ‘방식동사-방향보어’의 구조나 (6나)의 ‘進’과 같은 ‘방향동사’의 구조로 어느 것을 써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중국어에서는 방향동사인 ‘進’보다 ‘방식동사+방향보어’ 구조인 ‘走進’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위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어에서 주동사는 직시 동사이고,

7 여기서 말하는 방향보어는 중국어 문법에서 추향보어(趋向补语)라고 말한다. 刘月华·潘文娛·故韡(2019: 543)에서는 ‘방향보어’는 동사 뒤에 붙어서 쓰여 보어(补语)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來, 去, 上, 下, 進, 出, 回, 過, 起, 開, 到’와 같은 단순 방향보어 및 ‘來, 去’와 나머지 단순 방향보어 ‘上, 下, 進, 出, 回, 過, 起, 開, 到’로 합쳐서 구성된 ‘上來, 下來, 上去, 下去, 出來, 出去, 進來, 進去, 過來, 過去, 回來, 回去, 起來, 開來, 開去, 到...來, 到...去’의 복합 방향보어로 나눈다.

[방식]과 [경로]는 두 개의 개별 동사로 표현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방식동사는 주동사에 종속된 하나의 부가성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나 영어에서는 방식이 주요 동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이 어렵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정한 제약으로 인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의 [방식]과 [경로]의 어휘화 빈도가 달라진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현저성의 관점에서 보면 S-언어는 방식 현저성이 높은 언어이고, V-언어는 방식 현저성이 낮은 언어라는 점이다(Slobin, 2004). 하선정(2019)에서는 영어와 같은 S-언어에서는 방식이 주동사에 의해 어휘화되어 생략이 쉽지 않지만, 한국어와 같은 V-언어에서는 방식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로 표현할 때 방식동사('walked into'...) 대신에 경로동사('entere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어떤 유형의 어휘화 양상이 나타나는지와 또 위의 (4)뿐만 아니라 전체 이동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어휘화 양상이 나타나는지는 4장에서 논증하겠다.

2.3. 선행연구

이동사건의 범언어적 어휘화 유형 연구는 제2언어습득(SLA) 방면에 적용되고 있다. 제2언어습득 연구자들은 제2언어(L2) 학습자의 이동사건 어휘화 양상을 활발하게 연구해 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제2언어와 모국어의 어휘화 유형이 서로 달라, 제2언어 성인 학습자들은 제2언어로 이동사건을 어휘화할 때 장애를 겪고 부정적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눈다. 먼저 V-언어 모어 화자인데 S-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에는 Park(2008), 김정숙(2011), 劉岩(2014), 최원희·김희숙(2015), 정지윤(2019), Park(2020)이 있다. 또한 S-언어 모어 화자인데 V-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에는 Cadierno(2004), Larranage et. al.(2012)가 있다.

V-언어 모어 화자인데 S-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의미요소 중 [경로]와 [방식]이 어휘화될 때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보이는 모국어 전이 및 영어 어휘화 양상을 살펴본 논의가 있다(Park 2008, 김정숙 2011, 최원희·김희숙 2015, 정지윤 2019, Park 2020). 또한 劉岩(2014)에서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이 습득한 현대 중국어 이동사건의 표현 오류를 통해 모국어가 V-언어인 학습자가 S-언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어휘화 유형이 목표어로 전이하면서 체계적인 오류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Cadierno(2004)에서는 모국어가 덴마크어(S-언어)인 학습자가 스페인어(V-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동사건 경로의 복잡성(complexity)과 정교화(elaboration)에 대한 모국어 전이의 증거가 일부 존재하며, 모국어의 어휘화 양상이 확실히 목표어로 전이되어 체계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Larranage et. al.(2012)에서는 서로 다른 세 언어 능력 수준을 가진 영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이동사건의 표현 언어자료에 대한 [경로]와 [방식]의 어휘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어 제2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국어 전이가 중요한 역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에게도 모국어 전이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이동사건을 어휘화하는 과정에서 S-언어의 화자가 V-언어의 화자에 비해 [방식]을 인식하는 비율이 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방식]에 대한 어휘화 과정에서 특히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사건에 대한 표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도 V-언어인 한국어로 [방식]을 어휘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이동사건’을 표현할 때 [방식]과 [경로]의 의미요소를 어떻게 어휘화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동사건을 담고 있는 동영상 보여주고 그 상황을 문장으로 만들어 답하는 방식으로 언어자료를 수집하여, 이동사건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표현한 언어자료 이외에도 한·중 모어 화자의 언어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험 대상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중 모어 화자,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실험은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14일 동안 세 집단 화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⁹ 한국어 모어 화자¹⁰와 중국어 모어 화자¹¹ 20명 씩을 실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CKSL의 평균 연령은 23세이다. 남성 화자 1명과 여성 화자 19명이다. TOPIK 5, 6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 실험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회피전략을 사용하여 필요한 언어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NS의 평균 연령은 23세이고, 남성화자 6명, 여성 화자 14명으로 구성되었고, CNS의 평균 연령은 21세이고 남성 화자 4명과 여성 화자 16명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이동사건 동영상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¹²

8 원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실험도 리우하이러·김성주(2022)에서 진행했으나 실험 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 중국어 모어 화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재실험을 하게 되었다.

9 Chinese Korean Second-language Learner. 이하 논문에서는 ‘CKSL’라고 약칭한다.

10 Korean Native Speaker. 이하 논문에서는 ‘KNS’라고 약칭한다.

11 Chinese Native Speaker. 이하 논문에서는 ‘CNS’라고 약칭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동영상을 이용할 때 리우하이러·김성

< 표 1 > 실험에 사용한 이동사건 동영상 목록

이동사건 종류	경로 범주		내용
자발적 이동사건	출발		1. 여자가 방에서 나온다. 2. 여자가 계단을 내려온다.
	통과		3. 여자가 다리를 건너왔다. 4.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도착	도착	5. 여자가 방으로 들어갔다. 6. 고양이가 냉장고 위로 뛰어올라갔다.
		미도착	7.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멈추었다. 8. 고양이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멈췄다.
	미경과		9. 아이가 비탈길을 뛰어 올라가고 있다. 10. 고양이가 빙빙 돌고 있다.
비사역적 이동사건	출발	분리	11. 비행기가 이륙했다. 12.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
		미분리	13. 눈물이 (눈에서) 흘렀다. 14. 새싹이 돌아났다.
	통과		15. 열차가 다리를 지나갔다. 16. 종이 뭉치가 컵 위로 날아갔다.
	도착	도착	17. 종이비행기가 나뭇잎 위로 떨어졌다. 18. 자동차가 집으로 들어갔다.
		미도착	19. 펜이 컵 쪽으로 굴러가다가 멈추었다. 20. 공이 골대로 굴러가다가 멈추었다.
미경과		21. 공이 계단으로 툭툭 튀면서 내려갔다. 22. 종이배가 개울을 따라 떠내려간다.	
사역적 이동사건	출발		23.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뽑았다. 24. 여자가 사물함에 책을 꺼냈다.

주(2022)의 기준을 따랐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동사건의 종류별에 따라 자발적 이동사건, 사역적 이동사건 그리고 비사역적 이동사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경로] 범주에 따라서 [출발], [통과], [도착], [미경과]로 나누었다. [도착]의 범주는 다시 전경이 지표의 지점에 도착하였는지, 지표의 지점에 향해 가다가 멈추었는지에 따라 도착과 미도착으로 나누었다. [출발]의 경로 범주에서는 전경이 지표에서 출발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과 지표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미경과]는 ‘어떤 물체가 제자리에서 돌다’와 같이 전경이 배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여건상 자체 제작하기 어려운 동영상은 기존 동영상을 활용했다.

	통과	25. 사람들이 종이 구멍 안으로 공을 통과시키고 있다. 26. 남자가 발로 공을 차서 네트 너머로 넘겼다/쳤다.
	도착	27. 여자가 책을 책상 위로 던져놓았다. 28. 여자가 사물함에 책을 넣었다.
	미도착	29. 남자가 친 골프공이 홀컵을 향해 굴러가다가 멈추었다. 30. 여자가 캐리어를 아래층으로 들고 가다가 멈추었다.
	미경과	31. 남자가 팽이를 치고 있다. 32. 남자가 원반을 돌리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 1) CKSL이 한국어로 이동사건을 표현할 때 어떠한 어휘화 양상이 나타나는가?
- 2) CKSL이 [방식]과 [경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4. 이동사건 어휘화 양상 분석

4.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화 양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의 어휘화 양상은 주로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경로]와 [방식]의 의미요소가 어떻게 어휘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동영상에 대한 CKSL의 답변을 모두 분석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2> CKSL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유형	어휘화 양상	어휘화 유형	예문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1	(V ₁ -어)(V ₂ -어)(가다/오다)	V-언어		
	V _{경로} -어가다/오다		여자가 교실에서 <u>나온다</u> .	① [경로]
	V _{방식} -어가다/오다		여자가 다리를 <u>걸어간다</u> .	② [방식+ 경로]

	1-2	V ₁ -어V ₂ -어가다/ 오다		고양이가 냉장고 위로 뛰어 <u>올</u> <u>라</u> 간다.	② [방식+ 경로]
	1-3	V _{방식/원인} -어V _{경로}		펜이 책상에서 <u>굴러떨어</u> 진다.	② [방식+ 경로]
2	V _{경로}	사람이 다리를 <u>건</u> 넌다.		① [경로]	
3	V _{방식/원인}	고양이가 빙빙 <u>돈</u> 다.		③ [방식]	
4	VP ₁ + 연결어미+ VP ₂	미정	남자가 공을 발로 <u>차</u> 서 공을 네트 위로 넘겼다.	② [방식+ 경로]	

CKSL의 어휘화 양상은 총 네 가지 ‘(V₁-어)(V₂-어)(가다/오다)’, ‘V_{경로}’, ‘V_{방식}’, ‘VP₁+ 연결어미+ VP₂’로 나타났다. 첫 번째 어휘화 양상인 ‘(V₁-어)(V₂-어)(가다/오다)’는 [방식]과 [경로]가 복합동사처럼 연쇄적인 형식이다. 이런 양상은 다시 ‘가다/오다’로 취하는 복합어인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1과 1-2는 ‘가다/오다’로 취하는 복합어 형태이고, 이와 달리 1-3은 ‘굴러떨어지다’와 같은 ‘V_{방식/원인}-어V_{경로}’ 형태이다. 또한 ‘(V₁-어)(V₂-어)(가다/오다)’은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형별로도 나눌 수 있다. 1-1의 ‘V_{경로}-어가다/오다’는 [경로]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것이어서 ‘① [경로]’로 표시하고, 나머지 1-1의 ‘V_{방식}-어가다/오다’와 1-2의 ‘V₁-어V₂-어가다/오다’ 그리고 1-3의 ‘V_{방식/원인}-어V_{경로}’는 [방식]과 [경로]에 대해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 경로]’로 표시한다.

두 번째 어휘화 양상인 ‘V_{경로}’는 단순 경로동사 ‘건너다, 뛴다’ 등을 주동사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경로]만에 대해 인식하기 때문에 ‘① [경로]’로 표시한다.

세 번째 어휘화 양상인 ‘V_{방식/원인}’는 단순 방식동사(돌다, 뛰다)나 원인동사(던지다)를 주동사로 사용했다. 이는 [방식/원인]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기에 ‘③ [방식]’으로 표시한다.

네 번째 어휘화 양상인 ‘VP₁+ 연결어미+ VP₂’는 [방식/원인]이 개별 부사어류로 절에 첨가되어 나타난다.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 경로]’로 표시한다.

한편, ‘(V₁-어)(V₂-어)(가다/오다)’과 ‘V_{경로}’, 그리고 ‘V_{방식/원인}’은 한국어의 어휘화 유형인 ‘V-언어’로 분류하였다. [경로]가 동사로 어휘화

된다는 점에서 V-언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Talmy(2000a,b)가 말한 이동사건의 어휘화 유형(S-언어와 V-언어)은 단문인 이동사건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VP₁+ 연결어미+ VP₂’은 ‘미정’으로 처리했다(리우하이러·김성주 2022: 45-50).

CKSL의 경우 이동구문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593개의 문장을 추출해 냈다. <표 2>의 어휘화 양상과 비율을 상세하게 나타내면 아래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이동사건 종류에 따른 CKSL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및 비율

유형	어휘화 양상	자발적 이동사건	비사역적 이동사건	사역적 이동사건	어휘화 유형	
1	(V ₁ -어)(V ₂ -어)(가다/오다)	58%	46%	9%	V-언어	
	1-1	V _{경로} -어가다/오다	39%	17%		x ¹³
		V _{방식} -어가다/오다	7%	15%		x
	1-2	V ₁ -어V ₂ -어가다/오다	5%	4%		x
	1-3	V _{방식/원인} -어V _{경로}	7%	10%		9%
2	V _{경로}	20%	49%	39%		
3	V _{방식/원인}	13%	2%	28%		
4	VP ₁ + 연결어미+ VP ₂	9%	3%	24%	미정	
통합	4가지 양상	100%	100%	100%		

자발적 이동사건과 비사역적 이동사건에 관한 어휘화 양상은 각각 58%와 46%로 주로 [경로]와 [방식]이 연쇄적인 ‘(V₁-어)(V₂-어)(가다/오다)’(복합동사) 형식으로 어휘화된다. 그러나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V₁-어)(V₂-어)(가다/오다)’의 하위 유형인 ‘V_{방식/원인}-어V_{경로}’의 형식으로 어휘화되며 그 비율은 9%로 나타났다.

주동사가 경로동사로 어휘화된 ‘V_{경로}’는 자발적 이동사건에서는 20%로,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39%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사역적 이

13 ‘x’는 어휘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사건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인 49%로 나타난다.

주동사가 방식동사와 원인동사로 어휘화된 ‘V_{방식/원인}’은 자발적 이동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13%로 나타나고, 비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2%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28%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어휘화 양상인 ‘VP₁+ 연결어미+ VP₂’는 자발적 이동사건에서 9% 나타나고, 비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3%밖에 나타나지 않다. 그리고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중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어휘화 양상도 아래 <표 4>,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KNS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유형	어휘화 양상	어휘화 유형	예문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1	(V ₁ -어)(V ₂ -어)(가다/오다)	V-언어		
	1-1 V _{경로} -어가다/오다		여자가 교실에서 <u>나온다</u> .	① [경로]
	V _{방식} -어가다/오다		여자가 다리를 <u>걸어간다</u> .	② [방식+ 경로]
	1-2 V ₁ -어V ₂ -어가다/오다		고양이가 냉장고 위로 <u>뛰어 올라간다</u> .	② [방식+ 경로]
1-3 V _{방식/원인} -어V _{경로}		펜이 책상에서 <u>끌러떨어진다</u> .	② [방식+ 경로]	
2	V _{경로}		사람이 다리를 <u>건넌다</u> .	① [경로]
3	V _{방식/원인}		고양이가 빙빙 <u>돈다</u> .	③ [방식]
4	VP ₁ + 연결어미+ VP ₂	미정	남자가 공을 발로 <u>차서</u> 공을 네트 위로 넘겼다.	② [방식+ 경로]

<표 2>와 <표 4>를 통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CKSL의 어휘화 양상의 유형은 KNS의 어휘화 양상의 유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NS의 어휘화 양상은 아래 <표 5>¹⁴와 같다.

14 <표 5>에서 사용하는 약호는 아래와 같다.

preposition인 전치사[개사(介詞)]는 이하 논문에서 ‘PP’라 약칭한다.
satellite인 위성어는 이하 논문에서 ‘Sat’라 약칭한다.

< 표 5 > CNS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유형	어휘화 양상	어휘화 유형	예문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1	V+ Sat(DC)	S-언어	一個女生走進教室。 筆從桌子上滾下來。	② [방식+ 경로]
2	V+ Sat(DC제외)		一個足球滾向球門。 一個男孩在斜坡上奔跑。	
3	V경로	V-언어	女生進教室。	① [경로]
4	VP ₁ + VP ₂ (연동구문)	미정	球被人用工具推著穿過了障礙物。	② [방식+ 경로]
5	사자구조[四字結構]	미정	新芽破土而出。	② [방식+ 경로]

CNS의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은 총 다섯 가지 ‘V+ Sat(DC)’, ‘V+ Sat(DC제외)’, ‘V경로’, ‘VP₁+ VP₂(연동구문)’, ‘사자구조[四字結構]’로 나타났다. 첫 번째 어휘화 양상인 ‘V+ Sat(DC)’는 ‘방식동사나 원인동사+ 방향보어’로 구성된 형식이다. 여기서 방향보어는 다시 단순 방향보어와 복합방향보어로 나눌 수 있다. ‘V+ Sat(DC)’는 [방식]과 [경로]에 대해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 경로]’로 표시한다.

두 번째 어휘화 양상인 ‘V+ Sat(DC제외)’는 ‘방식동사나 원인동사’와 ‘전치사[개사(介詞)]’로 구성된 형식이다. 첫 번째 어휘화 양상과 구분하고자 ‘V+ Sat(DC제외)’를 한 유형으로 별도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형별로도 나눌 수 있다. ‘동사+ 개사’인 ‘滾向’와 같은 형식은 동사는 [방식]을 융합화하고 ‘개사’는 이동의 도착점이나 도착점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로]를 융합한다. 그래서 ‘② [방식+ 경로]’로 표시한다. ‘개사+ 동사’인 ‘在...上奔跑’와 같은 형식은 주로 어디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휘화하는 것이고 주로 미경과 이동사건을 표현한 것이다. 이동동사는 단순 [방식]을 어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③ [방식]’로 표현한다.

verb인 동사는 이하 논문에서 ‘V’라 약칭한다.

directional complemen인 방향보어는 이하 논문에서 ‘DC’라 약칭한다.

세 번째 어휘화 양상인 ‘V_{경로}’는 단순 경로동사 ‘上, 下, 进, 出, 上来, 出去’ 등을 주동사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경로]에 대해서만 인식하기 때문에 ‘① [경로]’로 표시한다.

네 번째 어휘화 양상인 ‘VP₁+VP₂(연동구문)’는 [방식/원인]을 어휘화한 동사와 [경로]를 어휘화한 동사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 경로]’로 표시한다.

다섯 번째 어휘화 양상인 ‘사자구조[四字結構]’는 [방식]과 [경로]를 융합한 서술어인 사자구조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 경로]’로 표시한다.

한편, ‘V+ Sat(DC)’와 ‘V+ Sat(DC제외)’는 중국어의 어휘화 유형인 ‘S-언어’로 분류하였다. 주동사는 [방식]이나 [원인]를 어휘화하고 동사와 자매 관계가 있는 방향보어나 개사 등으로 [경로]를 어휘화하는 점에서 ‘S-언어’로 보았다. ‘V_{경로}’는 [경로]가 동사로 어휘화된다는 점에서 ‘V-언어’로 분류하였다. ‘VP₁+VP₂(연동구문)’과 ‘사자구조[四字結構]’는 Talmy(2000a,b)가 말한 이동사건의 어휘화 유형(S-언어와 V-언어)은 단문인 이동사건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은 ‘미정’으로 처리했다(리우하이러·김성주 2022: 50-54).

CKSL, KNS와 CNS 세 집단의 어휘화 양상 및 비율을 분석한 것을 동영상 3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동영상 3: 여자가 다리를 건너왔다.

(9) KNS:

- | | |
|--------------------------|------------|
| 가. 여자가 다리를 건넜다.(17명/85%) | ① [경로] |
| 나. 여자가 다리를 걸어갔다.(2명/10%) | ② [방식+ 경로] |
| 다. 여자가 걷고 있다.(1명/5%) | ③ [방식] |

(10) CKSL:¹⁵

15 실제 실험에서는 (10가)의 경우 ‘다리를 건너다’와 ‘여자가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가 조사되었으나 이들을 (10가)의 범주로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어휘화 양상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맞춤법에 어긋난 것이나 동사의 시제, 상, 존대법 등의 문법 범주는 분석하지 않았다.

- 가. 여자가 다리를 건넜다.(7명/37%) ① [경로]
- 나. 여자가 다리를 건너간다(지나간다).(8명/42%) ① [경로]
- 다. 여자가 다리를 걸어가고 있다.(3명/16%) ② [방식+ 경로]
- 라. 여자가 다리 위를 걷는다.(1명/5%) ③ [방식]

(11) CNS:

- 가. 女生 過 橋了。(6명/ 30%) ① [경로]
 여자 건너- 다리
 여자가 다리를 건넜다.
- 나. 女生 走 過 橋。(9명/45%)/女生從橋上走過來了。(3명/15%)
 여자 걸- 건너- 다리 ② [방식+ 경로]
 여자가 다리를 걸어 건넜다.
- 다. 女生 在橋上 走。(2명/10%) ③ [방식]
 여자 다리-위에서 걸-
 여자가 다리 위에서 걷고 있다.

(9), (10), (11)을 통해서 세 집단의 동영상 3의 어휘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CKSL 집단에서 경로동사 ‘건너다’를 주동사로 사용하는 어휘화 양상(V_{경로})은 37%로 나타나고, ‘건너가다, 지나가다’의 어휘화 양상(V_{경로-어가다/오다})은 42%로 나타난다. ‘걸어가다’의 어휘화 양상(V_{방식-어가다/오다})은 16%로 나타난다. ‘걸다’의 어휘화 양상(V_{방식})은 5%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KNS 집단에서 경로동사 ‘건너다’를 주동사로 사용하는 어휘화 양상(V_{경로})은 85%로 나타나고, ‘걸어가다’의 어휘화 양상(V_{방식-어가다/오다})은 10%로 나타난다. ‘걸다’의 어휘화 양상(V_{방식})은 5%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CNS 집단에서 경로동사 ‘過’를 주동사로 사용하는 어휘화 양상(V_{경로})은 30%로 나타나고, ‘走過, 走過來’의 어휘화 양상(V+Sat(DC))은 60%로 나타난다. ‘走’의 어휘화 양상(V_{방식})은 10%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세 집단의 어휘화 양상 및 비율을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어서 다른 동영상의 어휘화 양상은 뒤에 논의에 따라 몇 개를 더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CKSL의 어휘화 양상은 KNS의 어휘화 양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KSL의 어휘화 유형도 KNS의 어휘화 유형과 같이 V-언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형적인 V-언어 유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 (10), (11)을 통해 세 집단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볼 수 있다. CKSL 집단에서 [경로]만 인식하는 비율은 79% 15명, [방식]과 [경로]을 모두 인식하는 비율은 16% 3명, [방식]만 인식하는 비율은 5% 1명에 불과하였다. CKSL 집단에서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①[경로]+②[방식+ 경로])의 약 95%,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③[방식]+②[방식+ 경로])의 약 21%로 [경로]는 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만 [방식]은 인식하지 않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KNS 집단에서 [경로]만 인식하는 비율은 85% 17명, [방식]과 [경로]을 모두 인식하는 비율은 10% 2명, [방식]만 인식하는 비율은 5% 인 1명에 불과하였다. KNS 집단에서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①[경로]+②[방식+ 경로])의 약 95%,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③[방식]+②[방식+ 경로])의 약 15%로 [경로]는 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만 [방식]은 인식하지 않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통해 CKSL 집단과 KNS 집단은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CNS 집단에서는 [경로]만 인식하는 비율은 30% 6명, [방식]과 [경로]을 모두 인식하는 비율은 60% 12명, [방식]만 인식하는 비율은 10% 2명에 불과하였다. CNS 집단에서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①[경로]+②[방식+ 경로])의 약 90%,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③[방식]+②[방식+ 경로])의 약 70%로 나타났다.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경향이 많다. [방식]과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비율이 다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인 이동사건에 대한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은 다음 4.2절에서 제시하였다.

4.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CKSL이 이동사건에 대한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잘 비교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한·중 모어 화자 두 집단의 비율도 <표 6> 안에 같이 제시하였다.¹⁶

<표 6> KNS, CKSL, CNS의 [방식]과 [경로]의 인식 비율

	KNS	CKSL	CNS
① [경로]	48%	55%	18%
② [경로+ 방식]	40%	31%	66%
③ [방식]	12%	14%	16%

<표 6>에 의하면 CKSL이 전체 이동사건의 약 31%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였다. [경로]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55%이고, [방식]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14%이다.

KNS가 전체 이동사건의 약 40%의 경우에서만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였다. [경로]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48%이고, [방식]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12%이다.

CNS가 전체의 약 66%의 경우 이동사건에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였다. 한편 [경로]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18%, 그리고 [방식]만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약 1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 집단이 이동사건 어휘화에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CNS에 비해 KNS와 CKSL은 단순 경로동사로 [경로]의 표현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KNS와 CKSL은

16 위의 <표 2>, <표 4>, <표 5>의 한국어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에서 1-1, 1-2, 1-3의 어휘화 양상과 중국어의 1, 4와 5의 어휘화 양상은 모두 '②[방식+ 경로]'로 분석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통사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2절의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빈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사구조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CNS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KNS는 CNS(18%)에 비해 거의 3배 많은 [경로] 어휘화한 것(48%)을 사용한다. CKSL에서는 단순 경로동사 ‘①[경로]’를 어휘화한 빈도(55%)가 CNS의 비율(18%)보다 월등히 높다.

다음은 세 집단의 이동사건의 [방식]과 [경로] 각각의 어휘화 비율을 더 간략하게 비교한 표이다.

< 표 7 > KNS, CKSL, CNS의 [방식]과 [경로]의 인식 비율(간략)

	KNS	CKSL	CNS
[경로] (①[경로]+②[방식+ 경로])	88%	86%	84%
[방식] (②[방식+ 경로]+③[방식])	52%	45%	82%

CKSL이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86%,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45%로 [경로]는 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만 [방식]은 인식하지 않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KNS가 이동사건의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전체의 약 88%,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52%로 [경로]는 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만 [방식]은 인식하지 않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CKSL과 KNS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CNS의 경우 [경로]를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약 84%,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한 비율은 82%다. 주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경향이 많아서 [방식]과 [경로]를 어휘화하는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세 집단의 화자의 경우 주로 [경로]와 [방식]을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반면 [방식]의 경우는 KNS, CKSL과 CNS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52% vs 45% vs 82%). 이는 CNS가 KNS와 CKSL에 비해 [방식]을 많이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이동사건의 [경로]와 [방식]을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비율의 차이로 세 집단이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

의 비율은 15%로 나타난다.

KNS의 경우 ‘V_{경로}’인 ‘떨어지다’를 어휘화하는 것에 있어서 (12가)와 같이 5%밖에 어휘화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경로]에 대해서만 인식하기 때문에 ‘① [경로]’의 비율은 5%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12나)의 ‘V_{방식/원인}-어V_{경로}’인 ‘굴러떨어지다’와 (12다)는 ‘VP₁+ 연결어미+ VP₂’인 ‘구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다’는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 경로]’의 비율은 총 75%로 나타난다.

CNS가 (14가)의 ‘掉’와 같이 ‘V_{경로}’인 어휘화 양상이 5%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14나)의 ‘V+ Sat(DC)’인 ‘滚下来’와 (14다)는 ‘VP₁+ VP₂ (연동구문)’인 ‘滚动着掉下’는 [방식]과 [경로]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기 때문에 ‘② [방식+ 경로]’의 비율은 총 95%로 나타난다.

이 이동사건에서 CKSL은 [방식]인 ‘구르다’를 15%밖에 어휘화하지 않았다. 반면 CNS는 95%의 비율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동영상의 어휘화 양상을 통해 CKSL이 모어인 중국어의 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KSL이 [방식]에 대해 많이 어휘화하지 않고 [경로]만 주로 어휘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인 CKSL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TOPIK 5~6급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았기 때문에 KNS의 V-언어의 특징이 나타난다. 둘째, V-언어의 화자가 [방식]을 생략하여 어휘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언어의 화자에 비해 [방식]을 인식하는 비율이 보다 더 낮다. S-언어에서는 [방식]이 주동사에 의해 어휘화되어 생략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어와 같은 V-언어에서는 [방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즉, S-언어를 사용하는 CKSL은 V-언어인 한국어로 [방식]을 어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CKSL은 V-언어인 한국어로 [방식]을 어휘화하지 않거나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CKSL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고급 화자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방식]을 어휘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회피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급 화자가 모어의 간섭 현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어 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CKSL의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은 물론 회피전략을 또 다른 매개 변인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나오는 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을 대상으로 이동사건에 대한 어휘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사건 동영상을 활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은 물론 한국어 모어 화자(KNS)와 중국어 모어 화자(CNS)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매우 유사한 어휘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서는 세 집단의 화자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먼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의 어휘화 양상은 총 네 가지 ‘(V₁-어)(V₂-어)(가다/오다)’, ‘V_{경로}’, ‘V_{방식}’, ‘VP₁+ 연결어미+ VP₂’로 나타났고, 그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KNS)의 어휘화 양상과 거의 같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KNS)의 어휘화 양상이 서로 비슷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의 어휘화 유형을 V-언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형적인 V-언어 유형은 아니었다. 자발적 이동사건과 비사역적 이동사건에 관한 어휘화 양상은 [경로], [방식]이 연쇄적인 형식인 ‘(V₁-어)(V₂-어)(가다/오다)’(복합동사)로 어휘화되는 양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역적 이동사건에서는 주동사가 경로동사로 어휘화되는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는 한국어 모어 화자(KNS)와 마찬가지로 사역적 이동사건에서 전형적인 V-언어 유형의 특징을 많이 드러냈다.

또한 본 연구는 세 집단이 [방식]과 [경로]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어 모어 화자(CNS)에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와 한국어 모어 화자(KNS)가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경로]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와 한국어 모어 화자(KNS)는 [경로]에 대해 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방식]은 인식하지 않

고 어휘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어 모어 화자(CNS)는 주로 [방식]과 [경로]를 모두 인식하고 어휘화하는 경향이 많아서 [방식]을 인식하는 비율과 [경로]를 인식하는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끝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SL)의 어휘화 양상의 종류는 한국어 모어 화자(KNS)의 어휘화 양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어 전의 현상이나 오류 양상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대상 집단이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찾아내지 못한 특별한 어휘화 유형이나 전이 현상이 더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Korean Second-language Learners' Aspects of the Lexicalization of Motion Events

Liu, Haile·Kim, Seongju(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lexicalization of [manner] and [path] of motion events when Chinese Korean second-language learners (CKSL) express them in Korean. In this study, the CKSL, the Korean native speakers (KNS), and the Chinese native speakers (CNS) watched a video about motion events. The researchers examined how the three groups recognized and expressed each motion event in the video. The lexicalization aspects of the CKSL are compared with that of the KNS and CNS. As a result, in terms of recognizing '(V₁-e)(V₂-e)(KATA/OTA)', 'V_{manner}' and 'V_{path}', 'VP₁+connective ending+VP₂', the CKSL showed lexicalization aspects that were relatively consistent with the KNS. However, the CKSL and KNS had different lexicalization aspects for the motion events compared with the CNS in [manner] and [path]. The three groups mainly recognized and lexicalized the [path] and [manner]. The percentages of showing recognition and lexicalization of [path] were 88% (CKSL), 86% (KNS), and 84% (CNS). In the case of [manner], the percentages were 52% (CKSL), 45% (KNS), and 82% (CNS). In other words, CKSL and KNS showed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manner] but favored [path] expressions compared to CNS. No significant difference showed in the rate of

recognizing [manner] (84%) and recognizing [path] (82%) because CNS tended to recognize and lexicalize both [manner] and [path].

KeyWords: Motion events, Lexicalization, Manner, Pat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참고문헌]

■ 단행본

刘月华·潘文娒·故鞲, 『实用现代汉语语法(第三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9, 1-935면.
 Talmy, L.,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 Concept Structuring Systems*, London: The MIT Press, 2000a, 1-565면.
 Talmy, L.,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London: The MIT Press, 2000b, 1-494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정숙,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이동사건의 통사적 표현 습득 연구-유형론적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337면.
 리우하이러·김성주, 「한·중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9-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31-59면.
 맹경흠·전옥, 「조선어 이동사건의 어휘화 유형에 대한 재고」, 『중국조선어문』 2,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18, 44-54면.
 이 숙, 「한국어에 나타나는 이동의 어휘화 형식-Talmy(1985)의 어휘화 유형론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2007, 169-188면.
 이연화, 「이동사건의 유형학적 분석과 한국어 어휘화 유형」, 『외국학연구』 43,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8, 197-214면.
 임지룡, 「한국어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 20, 현대문법학회, 2000, 23-45면.
 정지훈, 「한국어 화자들의 영어 이동 동사의 사용 양상 연구-어휘화 유형론의 관점에 따른 분석」, 『언어과학연구』 89, 언어과학회, 2019, 333-350면.
 진 현, 「이동사건의 한·중 유형학 분석과 대조」, 『중국언어연구』 33, 한국중국언어학회, 2010, 155-176면.
 채희락, 「이동동사의 정의와 분류」, 『현대문법연구』 15, 현대문법학회, 1999, 79-100면.
 최원희,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이동사건 표현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102면.
 최원희·김희숙,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이동사건 표현 양상 연구-어휘화 유형론을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36, 한국중원언어학회, 2015, 363-383면.
 하선정, 「이동사건의 경로와 방식의 인식과 어휘화 과정 연구-영어와 한국어 화자를

-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89, 언어과학회, 2019, 351-373면.
- 홍연옥, 「이동사건 표현의 언어유형론과 공동합성 양상 고찰-‘뜨다’ 표현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7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3, 273-291면.
- 鄧宇·李福印, 「現代漢語是均等框架語言嗎?-從Leonard Talmy 與 Dan Slobin的運動事件類型學之爭談起, 『語言學研究』 22, 2017, 113-123면.
- 柯理思(Christine Lamarre), 「漢語空間位移事件的語言表達-兼論述趨式的幾個問題, 徐傑·鐘青 主編, 『漢語詞匯, 句法, 語音的相互關聯』,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3, 222-253면.
- 劉岩, 「現代漢語運動事件表達模式研究,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1-162면.
- 劉岩, 「韓國留學生習得現代漢語運動事件句的偏誤分析, 『浙江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39-4, 2014, 41-48면.
- 沈家煊, 「現代漢語“動補結構”的類型學考察, 『世界漢語教學』 65-3, 2003, 17-23면.
- Cadierno, T., Expressing Motion Events in a Second Language: a Cognitive Typological Perspective, edited by Achard, M. & Niemeier, S., *Cognitive Linguistic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Berlin: Mouton de Gruyter, 2004, 13-49면.
- Choi, S. & Bowerman, M.,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 The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lexicalization patterns. *Cognition* 41, 1991, 83-121면.
- Larranage et. al., L1 transfer in the acquisition of manner and path in Spanish by native speakers of Englis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6-1, 2012, 117-138면.
- Park, H. I., How do speakers of different languages differ in the encoding of complex motion events?, *Linguistic Research* 37-1, 2020, 95-120면.
- Park, Y. J., Expressing Motion Events in Two Typologically Different Languages: Language Transfer of Path and Manner Expressions, *Language Research* 44-1, 2008, 193-222면.
- Slobin, D.I., The many ways to search for a frog: Linguistic typology and the expression of motion events, edited by Strömquist, S. & Verhoeven, L., *Relating events in narrative 2, Typologic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 219-257면.
- Tai, J., Cognitive relativism: Resultative construction in Chi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4-2, 2003, 301-316면.

Talmy, L., Lexicalization pattern: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edited by Shopen, T.,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427면.

■ 기존 동영상의 출처:

4. <http://xhslink.com/aqGekh>,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6. <https://v.douyin.com/RgaP23f/>,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8. <https://www.youtube.com/shorts/y8jYUi48oLY>,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9. <乔家的儿女> 드라마 2회,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10. <http://xhslink.com/ytdgjh>,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13. <https://www.youtube.com/watch?v=OX9pGI23Wkk&t=39s>,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14. <https://www.youtube.com/watch?v=ZRhx07irLcM>,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15. <https://www.youtube.com/watch?v=YvhgodtETcQ>,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23. <https://www.youtube.com/watch?v=7WK61ljNBVs>,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25. <http://xhslink.com/PMu7ih>,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26. <https://youtube.com/watch?v=2R7sDomMa0A&feature=share>,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29. <https://www.youtube.com/watch?v=HZPA8A2hZCI>,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31. <https://v.douyin.com/RgunLDb/fu>,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32. <https://www.youtube.com/watch?v=O4Ltstol8rk>, 검색일 2022년 5월 22일.